



&lt;먼나무&gt;

## 아열대 樹種 가로수 심었더니 보란듯 잘자라 '온난화 입증'

광주·전남, 2004~2005년 심은 먼나무·홍가시나무 등 3만그루 '쑥쑥'

지구 온난화 탓인지 광주·전남 지역 식물들의 성장 범위와 시기가 이상해졌다.

2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보길도 등 전남 남해안 일부 섬과 제주도에서만 자라던 먼나무와 홍가시나무가 광주에서도 '보란듯이' 잘 자라고 있다.

먼나무는 주로 일본 남부와 대만 등 난대 또는 아열대 기후 지역에 분포하는 쌍떡잎 상록수이고, 홍가시나무 역시 일본이 원산지인 관목

으로 10년 전만 해도 광주 지역에서는 찾을 수 없던 식물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이 지역에서 생육이 불가능했던 이를 난대 기후성 수종(樹種) 약 3만 그루를 운천로와 상록공원 등에 공원용 또는 가로수 용으로 2004년과 2005년에 심었다.

나무의 적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3~4년이 지난 뒤 이를 나무는 예상과 달리 매우 건강히 자라고 있

는 것으로 관찰됐다.

시는 이 같은 현상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에 따른 것으로 보고 종전의 '나무 1천만 그루 심기' 사업을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2002년부터 매년 2월 사업 설계와 시공사 등에 대한 입찰 공고를 해 3~4월에 나무를 심어 왔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각각 1개월씩 앞당겨 식재 시기를 2~

3월로 잡았다.

전남도 역시 '한라봉'으로 잘 알려진 부지화(不知火)의 재배 지역이 기존의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 최근 나주시와 영암군 등 내륙 지역으로 확대돼 생산량이 늘고 있다.

시·군 관계자들은 이처럼 식물들의 성장 시기와 범위가 달라진 원인을 급격히 진행되는 지구 온난화에



&lt;홍가시나무&gt;

서 찾았다. 실제로 1980년 영상 12.3 도이던 광주 지역의 연 평균기온은 1997년 14.1도로 상승했으며 작년의 경우 14.6도를 기록해 27년 전보다 2.3도 높아진 것으로 관측됐다.

시 관계자는 "식목일이 있는 4월 초순이 나무 심기에 알맞은 때라는 말은 중부 이북 지방에 해당한다"며 "식물 생장 기간을 고려한다면 호남 지방의 식목일은 3월이 돼야 맞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한국 우주인 이소연이 23일 모스포츠에서 우주 캡슐의 지구 귀환 훈련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전남 타르피해 특별대책위 본격 활동

전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는 24일 타르피해 복구를 위한 '전남 타르피해 시민사회 특별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사고 원인 제공자에 대해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등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20면>

목포YMCA 등 전남지역 2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이날 전남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특별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가해 기업 측에 책임을 지도록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대량의 기름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이 어업과 친환경 관광업 등의 생업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밀집된 '국립 공원급'의 해안가를 덮친 것은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사고를 일으킨 기해 기업 측에서 모든 피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고의 완전한 복구와 배상을 위해 ▲방제 실패 책임 정부의 전남 어민 피해 보상 ▲특별재난 지역 제외된 진도·함평 피해 지원 등에 대한 배상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대량의 기름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2010년 F1대회 준비 본격화

### 운영법인 지분 20% 이하 낮추기로

전남도-KAVO 합의

대회 준비 일정에 상당부분 차질을 빚어온 '2010년 F1 국제자동차 경주 대회'가 대회 운영법인의 지분구조 개편 합의로 그동안의 부진을 만회할 계기를 마련했다.

이상면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24일 도청 기자실에서 F1 대회 운영법인인 KAVO(Korea Auto Valley Operation)의 정영조 대표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KAVO의 대주인 MBH가 현재 보유한 51%의 지분을 액면가 그대로 아무런 조건없이 20% 이하로 낮추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F1 특별법'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도 포함돼 있어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제3의 기업이

정했다. 이날 확정된 계획안에 따르면 시는 우선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운영에 1천322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7대 문화권 조성사업은 문화전당권에 공공디자인 시범지역, 아시아 음식문화지구 등을 만들고 문화교류권에 역사문화마을, 아시아 공방(工房)촌, 빛과 물 문화커뮤니티센터 등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문화도시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아시아 전통문화공간, 문화예술창작공원, 폐선부지 녹지공간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차기 정부의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폐지 방침과 무관하게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을 바탕으로 세운 이번 실시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새정부 개혁방향' 학술대회

### 서울행정학회 오늘 조선대서

서울행정학회(회장 서상숙 조선대 교수)는 25~26일 조선대 법과대학에서 조선대 문화법정책연구소 주관으로 '새 정부 개혁방향'을 주제로 2008년도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전국 100여명의 교수 및 전문가들은 새 정부 개혁방향, 정부조직 적정규모, 문화 공간정책, 대통령선거,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이게 된다. 참석자들은 특히 노무현 정부의 개혁정책을 평가하고,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1990년 설립된 서울행정학회는 국내·외 행정이론의 한국적 적실성을 탐구하는 행정학계의 대표적 학술단체다.

/정성필기자 camus@

## 정정 공고

### 본지 2008년 1월 23일자에 게재된 GM건설 분묘개장공고 중

### 분묘위치 영암군으로 해남군으로

바로 잡습니다.

1월 26일(토)

▲무등도산임업원 1구 벼유수 품종선험 1월26일(토) 07:30~11:00

▶전립부신경증 치료 조제(100mg) 07:30~11:00

▶전립부신경증 치료 조제(100mg) 07:30~11:00

▶비두리식당에 걸친 엄마 놀이터 1층(2008.1.26. 10:00~13:00)

▶우주인 이소연 훈련장에서 2008년 1월 23일(금) 10:00~13:00

▶한국전력기술원 1000m 해발 고지대에서 2008년 1월 26일(일) 07:00~11:00

▶한국전력기술원 1000m 해발 고지대에서 2008년 1월 26일